

울산·경남지역 여성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

전유명¹⁾·이종호[¶]

울산과학대학교 호텔조리영양과¹⁾·경성대학교 외식서비스경영학과[¶]

A Study on Eating-out Behaviors Depending on Female Customers' Lifestyle in Ulsan · Gyeongnam Province

Yoo-Myeong Jeon¹⁾ · Jong-Ho Lee[¶]

Dept. of Hotel Culinary Arts & Nutrition, Ulsan College¹⁾

Dept. of Food Service Management, Kyungsoong University[¶]

Abstract

The current study aimed to analyze data conducting a survey with 211 females in Ulsan · Gyeongnam province in order to understand what influence lifestyle types of female customers exert on eating-out behaviors from the perspective of eating-out motivation. So as to achieve research purpose, we conducted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OVA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through SPSS 12.0 program. Findings of analyses indicated that items of lifestyle involve d 4 factors, and the item of eating out behaviors was extracted to be 1 factor. As a result of testing differences in lifestyle depending on residential areas, both type of chasing fashion and type of extroverted dependence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riables, and both factors indicated that females living in Ulsan have higher mean values than those of females living in Gyeongnam. As a result of analyzing lifestyle depending on age, which was adopted in part, females at the ages of 31~40 had higher mean values than those in other ages in the type of chasing fashion, and females above the age of 51 had higher mean values than those in other ages in type of chasing health. As a result of lifestyle depending on academic backgrounds, university students or graduates had higher mean values than those in other academic backgrounds. For the influence of lifestyle types on eating-out behaviors depending on eating-out motivation, the type of chasing fashion, the type of purchasing the quality of life, and the type of chasing health were $p < 0.001$, having significant effects.

Key words: eating-out, behavior, customer, lifestyle,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I. 서 론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사회학·심리학에서 개인·집단·계층 간의 차이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오다가, 1960년대에 접어들어 미국 마케팅학회에서 소개되면서 마케팅에 응용되기

시작(Cho JK·Kim HD 2001)하였으며, 현대에 와서는 라이프스타일의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행동이나 기업의 마케팅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은 시장 세분화의 기준이 되며(Chaiky SI 1992), 사회적 동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고(Solomon MR 1994), 소비 패턴에

¶ : 이종호, 010-5641-0138, johlee@ks.ac.kr,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제의 성숙화에 따라 사람들은 기본적인 삶의 충족을 위한 소비에서 풍요와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개념은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외식의 소비 형태를 살펴보면, 식료품비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1963년 7.5%에서 2007년에 49.5%로 6.6배나 증가(Cho HY·Lee JH 2010)하였으며, 국가통계 포털의 외식비지출전망 CSI(consumer sentiment index, 기준치 100)의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2008년 7월 75, 2009년 7월 87에서 2010년 7월 94로 증가 추세에 있다(소비자동향조사 2010). 또한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맞벌이 부부의 증가나 독신생활자의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등에 따른 소비 패턴이나 가치관의 변화는 가정 내에서 식사와 준비와 처리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켰고, 특히 취업 여성은 집에서 식품을 조리하는 대신에 사회에 나가 일을 함으로써 직접 조리하는 것보다 조리된 식품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Kim HS 2008). 또한 여성의 고학력화, 사회활동의 범위의 증가, 취업률의 증가, 가사노동의 기계화, 출산율의 저하 등으로 많은 여성들이 점점 많은 소득과 자유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여성 소비자는 소비 시장에서 중요한 소비계층의 지위를 차지해 가고 있다(이학식 등 2001).

이와 같이 식료품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 외식비지출전망 CSI,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외식의 증가 등으로 여성고객을 대상으로 한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외식행동 내지는 레스토랑 선택행동, 메뉴선택행동, 지출행동 등의 행위를 분석하여 레스토랑이나 외식기업에서는 고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하고 적합한 메뉴구성과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데 기초 자료로 제공(Sohn IN·Kim YS 2008)이 가능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라이프스타일과 외식행동이 따로 연구되어져 왔으며, 최근에 라이프스타일과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식생활과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외식행동에 있어 외식횟수, 외식비, 식당선택기준, 선호음식 등 일반적인 외식행동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Chaiky SI 1992), 본 연구는 여성고객의 문화, 의생활 등 미시적 차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분석하여 지역, 연령, 학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유의성과 외식을 하는 동기 측면의 외식행동을 요인으로 추출하여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라이프스타일

Douglas PS & Urban CD(1977)은 라이프스타일을 그들의 일상생활패턴, 일하는 습관, 여가활동과 흥미, 자아인지, 포부와 좌절, 그들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주변 환경에 관한 신념이나 의견이라고 하였으며, Hawkins IBR & Kenneth AC(1986)는 개인의 학습 기억 가치관, 사회 지위, 인격 등에 따라 인지 정도와 시장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이는 소비자들의 수효와 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영향은 제품 구매 결정에서 얻은 경험으로 유지되어 다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전호문 등(2005)은 라이프스타일을 구체적인 행동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써, 가치와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김동훈 등(2005)과 안광호 등(2005)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였고, 주로 개인의 활동(activities), 관심분야(interests), 의견(opinion)을 묻는 AIO분석을 통

해 측정되고 있으며,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은 그가 소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세분화 변수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Scholderer J et al(2004), Stelmach W et al(2005)과 O'Sullivan C et al(2005)은 음식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Food-related Lifestyle)을 쇼핑의 방법, 요리방법, 질 측정, 소비상황, 구매동기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Kim MJ 등(2007)은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유행추구형, 안전추구형, 분위기추구형의 5개 요인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구분하였다.

라이프스타일과 식생활과 관련된 연구(Chaivy SI 1992; Kim MJ 등 2007; Jung HS · Yoon HH 2007; Sul HK 등 2007; Han IK · Ha AW 2009; Hong WS 등 2011), 주부를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연구(Jeong GW 2009; Kim HJ · Kim MR 2010),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정대용식 구매 행동 연구(Hur SG 2007),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행동 연구(Kim KY 2006; Sohn IN · Kim YS 2008; Van JW 2008),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베이커리 제품 구매 의도(Lim HC 2010), 와인 소비와 관련하여 한국형 라이프스타일 측정 변수 분석(Lee BY · Woo KS 2006),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파티 잠재 고객의 공간 연출과 음식에 대한 중요도 차이 연구(Lee YR 등 2009) 등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2. 외식행동

우리나라 외식 소비자들의 외식 행동은 인구통계학적 기준에서 성별, 연령별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연령별 식생활 양식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식사 형태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Yoon HR 2005). Yoon SH(2003)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아동기의 외식행동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외식행동을 통한 대인관계 기술의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적 구성과

활용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Kim DH와 Beik GY(2005)는 대구시내에 근무하는 직장인 남녀를 대상으로 외식횟수, 외식이유, 1인당 평균 외식비, 월평균 외식 지출비, 선호하는 음식 등 외식행동에 대해 연구 조사를 하였으며, Kim DH 등(2007)은 외식 유형을 직장 외식과 가족 외식으로 세분화하여 외식 형태를 조사하였고, 두 집단 간의 외식 유형에 따른 이용자 선택 속성을 비교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Woo KJ 등(2005)은 대학생의 외식 행동과 식당 선택 요인을 조사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식업체뿐만 아니라 대학 식당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Lee JH(2009)는 대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 지역 남녀 대학생 282명을 대상으로 외식행동, 식생활 습관,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가 비만도와와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ho HY과 Lee JH(2010)는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산 지역 호텔 및 외식업체의 조리사 및 식음료 종사원들의 식생활 습관을 파악하고, 이들의 외식행동을 조사하여 식생활 습관을 파악하고, 이들의 외식행동을 조사하여 식생활 습관이 외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Lee BS 등(2011)의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비만도와 외식행동 및 식습관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경남 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부들의 외식행동은 한 달에 4회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1회 평균 외식비는 7,001~11,000원이 34.9%이고, 외식목적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44.2%, 외식동반자는 가족 및 친지가 63.8%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선행연구(Chaivy SI 1992; Lee JH 2009)를 바탕으로 2011년 7월 4일부터 7

월 8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에 맞게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2011년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울산과 경상남도(양산, 경주) 지역에 거주하며 외식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찜질방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울산에 120부, 경상남도에 120부(총 240부)를 배포하였고 218부(90.8%)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설문지의 응답이 불성실한 7부를 제외한 211부(87.9%)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2. 조사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설문지는 라이프스타일(Chaivy SI 1992; Park KY 2008)과 외식행동(Lee JH 2009; Kim DH·Beik GY 2005)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16 문항, 외식동기와 관련된 외식행동 4문항, 일반적인 외식행동 4문항, 주거지역, 연령, 학력,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사항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라이프스타일 및 외식행동에 관한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를 이용하였다.

3. 통계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인 외식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라이프스타일 및 외식동기에 따른 외식행동에 대하여 요인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라이프스타일 요인에 대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거지역, 연령, 학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라이프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의 요인이 외식동기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4.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가설 1 주거지역은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연령은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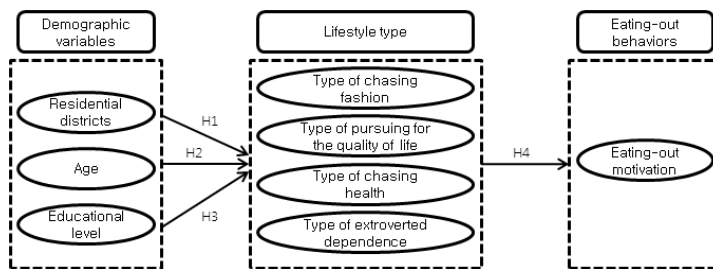
가설 3 학력은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외식동기에 따른 외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항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주거지역은 울산이 105명(49.8%), 경남이 106명(50.2%)이었으며, 연령은 41~50세가 75명(35.5%), 31~40세가 50명(23.7%), 51세 이상이 43명(20.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이 77명(36.5%),



<Fig. 1> Research model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211)

	General status	Frequency(persons)	Percentage(%)
Residential districts	Ulsan	105	49.8
	Gyeongnam	106	50.2
Age	≤ 30	43	20.4
	31-40	50	23.7
	41-50	75	35.5
	51 ≤	43	20.4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74	35.1
	College	50	23.7
	University	77	36.5
	Graduate school ≤	10	4.7
Occupation	Professional	36	17.1
	Company employees	26	12.3
	Public official	9	4.3
	Self-employed	28	13.2
	Service	20	9.5
	Housewife	72	34.1
	Etc	20	9.5
Marital status	Married	169	80.1
	Not married	42	19.9
Monthly family income (ten thousands won)	≤100	19	9.0
	101-200	53	25.1
	201-300	49	23.2
	301-400	41	19.4
	401 ≤	49	23.3

고등학교 졸업이 74명(35.1%), 대학 재학 또는 졸업이 50명(23.7%)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으로 주부가 72명(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 36명(17.1%), 자영업 28명(13.2%)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는 기혼이 169명(80.1%), 미혼이 42명(19.9%)으로 조사되었고, 월 소득은 101~200만원이 53명(25.1%), 201~300만원과 401만 원 이상이 49명(23.2%) 순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인 외식행동에 관한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외식행동은 <Table 2>와 같다. 월 평균 외식 횟수는 2~4회가 106명(5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8회가 48명(22.7%), 9회 이상이 33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1회에 지출하는 외식비는 5,001원~10,000원이 54명(25.6%), 10,001원~20,000원이 51명(24.2%), 20,001원~30,000원이 38명(18.0%) 순으로 나타났으며, Kim DH와 Beik

GY(2005)의 연구결과에서도 1인당 외식비는 1만원 이내가 조사대상자의 91명(31.7%)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과 일치하였다. 외식하는 장소는 고기집 79명(37.4%), 한식 60명(28.4%), 횃집 29명(13.7%), 패밀리 레스토랑 19명(9.0%) 순으로 나타났다. 메뉴 선택 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맛이 157명(7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격 26명(12.3%), 영양 18명(8.5%) 순으로 나타났다. Lee SI(2008)의 메뉴선택의 속성에서도 음식의 맛이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3. 요인 및 신뢰도 분석

1) 라이프스타일 항목에 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 <Table 3>과 같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분

<Table 2> Eating out behaviors

Eating out behaviors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Frequency of eating out	1 time per month	24	11.4
	2-4 time per month	106	50.3
	5-8 time per month	48	22.7
	Over 9 time per month	33	15.6
Eating out expenditure per person(₩)	≤5,000	10	4.7
	5,001-10,000	54	25.6
	10,001-20,000	51	24.2
	20,001-30,000	38	18.0
	30,001-50,000	35	16.6
	50,001≤	23	10.9
Places to eat out	Korean restaurant	60	28.5
	Chinese restaurant	18	8.5
	Japanese restaurant	6	2.8
	Sliced-raw-fish restaurant	29	13.8
	Meat restaurant	79	37.4
	Family restaurant	19	9.0
Considerations when selecting menu	Price	26	12.3
	Taste	157	74.4
	Nutrition	18	8.5
	Volume	5	2.4
	Etc	5	2.4

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는 단순화를 위해 직각회전의

Varimax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추출의 기준은 요인적재량이 0.5이상이며 아이겐 값이 1이상인 것

<Table 3>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es on the items of lifestyle

Factor	Item of lifestyle	Communalitie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ratio	Cronbach's α
Type of chasing fashion	Rapidly accepting new vogue or fashion	0.874	0.919	5.115	19.879	0.899
	Being concerned about fashion information	0.793	0.866			
	Having clothes of the latest fashion	0.774	0.853			
	Giving advice or good words regarding fashion	0.672	0.767			
Type of pursuing for the quality of life	Doing regular exercise	0.711	0.785	2.397	18.365	0.791
	Training body and mind for health	0.690	0.768			
	Taking up hobbies diligently	0.531	0.647			
	Often visiting art museums or concert halls	0.548	0.619			
	Often watching movies or plays	0.563	0.594			
Type of chasing health	Enjoying meditating	0.499	0.586	1.862	16.136	0.836
	Living a sound life	0.735	0.845			
	Living a regular and stable life	0.689	0.807			
Type of extroverted dependence	Living a home-based life	0.688	0.787	1.358	12.695	0.734
	Being very independent	0.756	0.826			
	Being certainly self-confident	0.734	0.822			
KMO	Thoroughly preparing in advance	0.524	0.616	0.782		
	Kaiser-Meyer-Olkin measure					
Bartlett	Chi-square approximation			1696.544		
	Significant					
	Total cumulative				0.000	67.075

으로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여 요인명을 유행추구형, 삶의 질추구형, 건강추구형, 외향적 독립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설명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KMO (Kaiser-Meyer-Olkin)와 요인분석 모형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의 값이 0.90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며, 0.80 이상이면 꽤 좋은 것이며, 0.70 이상이면 적당한 것이며, 0.60 이상이면 평범한 것(정충영·최이규 2011)으로 본 연구에서 KMO값은 0.782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1696.544($p=0.000$)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출된 요인들에 의하여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Communality)은 모두 0.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누적 분산력은 67.075%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의 신뢰성 분석은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저해하는 항목은 없었으며, 유행추구형(0.899), 건강추구형(0.836), 삶의 질추구형(0.791), 외향적 독립추구형(0.734) 순으로 신뢰성이 나타났다. 이학식·임지훈 (2007)은 사회과학에서 신뢰도 계수가 0.8-0.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6-0.7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알파 값이 0.6이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식동기에 따른 외식행동 항목에 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외식동기에 따른 외식행동에 관한 요인 및 신

뢰도 분석 결과 <Table 4>와 같다.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요인추출 방법)과 Varimax법(요인 적재치)을 사용하여 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KMO값은 0.708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0.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공통성(Communality)은 모두 0.4보다 높게 나타났다. 누적 분산력은 55.437%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분석(Cronbach's α)결과 0.728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상관관계분석

라이프스타일과 외식동기에 따른 외식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한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에 나타나 있다. 삶의 질추구형은 유행추구형 요인들과 $p<0.01$ 유의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건강추구형은 유행추구형 요인들과 $p<0.05$, 삶의 질추구형 요인들과 $p<0.01$ 유의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외향적 독립추구형은 유행추구형, 삶의 질추구형, 건강추구형 요인들과 $p<0.01$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외식행동은 유행추구형, 삶의 질추구형, 건강추구형, 외향적 독립추구형과 $p<0.01$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5. 가설 검정

1) 주거지역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분석

주거지역(울산·경남)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Table 4>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es of eating-out behavior items depending on eating-out motivation

Factor	Item of eating-out	Communalitie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ratio	Cronbach's α
Eating-out	Eating out with family	0.549	0.797	2.217	55.437	0.728
	Celebrating special days	0.452	0.762			
	Promoting good fellowship	0.581	0.741			
	Enjoying new and diverse tastes	0.635	0.673			
KMO	Kaiser-Meyer-Olkin measure			0.708		
	Chi-square approximation			175.481		
	Bartlett Significant				0.000	
	Total cumulative				55.437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of the lifestyle types and eating-out behaviors

	Type of chasing fashion	Type of pursuing for the quality of life	Type of chasing health	Type of extroverted dependence	Eating-out
Type of chasing fashion	1.000				
Type of pursuing for the quality of life	0.383**	1.000			
Type of chasing health	0.171*	0.233**	1.000		
Type of extroverted dependence	0.343**	0.430**	0.256**	1.000	
Eating-out	0.352**	0.316**	0.171**	0.217**	1.000

* $p<0.05$, ** $p<0.01$.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검정을 위해 t -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유행추구형은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임($p<0.05$), 패션에 관심을 갖고 있음($p<0.001$), 최신 유행의 옷을 갖고 있음($p<0.05$), 패션에 대한 조언이나 충고를 함($p<0.01$)의 4개 변수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추구형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울산에 사는 여성이 경남에 사는 여성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삶의 질추구형은 규칙적인 운동을 함($p<0.05$), 취미활동을 충실히 함($p<0.05$), 영화나 연극을 자주 감상함($p<0.01$)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외향적 독립추구형은 자신감이 넘침($p<0.05$),

신중하게 사전준비를 함($p<0.05$), 독립심이 강함($p<0.01$)의 3개의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외향적 독립추구형의 평균값에서 울산에 사는 여성고객이 경남에 사는 여성고객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주거지역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2) 연령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ANOVA 분석

연령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검정을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유행추구형은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임($p<0.05$)에

<Table 6> Analysis of lifestyle depending on residential districts (Mean±S.D)

Factor	Item of lifestyle	Residential districts		T-value
		Ulsan	Gyeongnam	
Type of chasing fashion	Rapidly accepting new vogue or fashion	3.37±1.04	2.99±1.15	2.522*
	Being concerned about fashion information	3.52±1.08	2.88±1.16	4.181***
	Having clothes of the latest fashion	3.32±1.16	2.99±1.12	2.043*
	Giving advice or good words regarding fashion	2.76±1.04	2.33±1.19	2.809**
Type of pursuing for the quality of life	Doing regular exercise	2.89±1.20	3.25±1.22	-2.164*
	Training body and mind for health	3.19±1.00	3.25±1.02	-0.394
	Taking up hobbies diligently	3.31±1.04	2.99±1.13	2.107*
	Often visiting art museums or concert halls	2.47±1.14	2.37±1.17	0.623
	Often watching movies or plays	3.16±1.16	2.72±1.06	2.910**
Type of chasing health	Enjoying meditating	2.90±1.01	2.85±0.90	0.350
	Living a sound life	3.93±0.80	3.79±0.99	1.055
	Living a regular and stable life	3.68±0.96	3.71±1.04	-0.228
Type of extroverted dependence	Living a home-based life	3.70±0.90	3.71±0.93	-0.174
	Being very independent	3.61±0.84	3.25±1.11	2.617**
	Being certainly self-confident	3.37±0.90	3.11±0.85	2.136*
	Thoroughly preparing in advance	3.68±0.79	3.41±0.98	2.203*

* $p<0.05$, ** $p<0.01$, *** $p<0.001$.

<Table 7> ANOVA analysis of lifestyle depending on age

		(Mean±S.D)				
Factor	Item of lifestyle	≤30	31~40	41~50	51≤	F-value
Type of chasing fashion	Rapidly accepting new vogue or fashion	3.16±1.09 ^{ab}	3.50±0.81 ^b	3.16±1.22 ^{ab}	2.86±1.17 ^a	2.641 [*]
	Being concerned about fashion information	3.37±1.05 ^{ab}	3.46±1.01 ^b	3.09±1.28 ^{ab}	2.91±1.19 ^a	2.296
	Having clothes of the latest fashion	3.07±1.10	3.26±1.12	3.24±1.28	2.98±1.24	0.639
	Giving advice or good words regarding fashion	2.49±1.03 ^{ab}	2.88±0.94 ^b	2.44±1.28 ^{ab}	2.40±1.14 ^a	1.980
Type of pursuing for the quality of life	Doing regular exercise	2.42±0.94 ^a	3.04±1.16 ^b	3.31±1.30 ^b	3.33±1.17 ^b	6.108 ^{***}
	Training body and mind for health	3.07±0.99	3.04±0.92	3.32±1.10	3.40±0.93	1.537
	Taking up hobbies diligently	3.35±0.92	3.20±1.05	3.03±1.23	3.09±1.04	0.866
	Often visiting art museums or concert halls	2.44±1.03 ^{ab}	2.72±1.01 ^b	2.33±1.19 ^{ab}	2.19±1.30 ^a	1.901
	Often watching movies or plays	3.37±1.05 ^c	3.16±1.08 ^{bc}	2.84±1.08 ^{ab}	2.42±1.16 ^a	6.438 ^{***}
Type of chasing health	Enjoying meditating	2.81±1.05	2.80±0.78	2.89±0.95	2.98±0.96	0.329
	Living a sound life	3.81±0.76	3.76±0.77	3.87±1.02	4.00±0.98	0.582
	Living a regular and stable life	3.33±1.04 ^a	3.62±0.83 ^{ab}	3.83±1.07 ^b	3.91±0.92 ^b	3.243 [*]
Type of extroverted dependence	Living a home-based life	3.33±0.99 ^a	3.66±0.80 ^{ab}	3.81±0.95 ^b	3.91±0.78 ^b	3.711 [*]
	Being very independent	3.49±0.86	3.38±0.88	3.33±1.14	3.60±1.00	0.759
	Being certainly self-confident	3.26±0.79	3.34±0.77	3.23±0.95	3.14±0.99	0.404
	Thoroughly preparing in advance	3.47±0.80	3.56±0.79	3.48±0.95	3.70±1.04	0.654

* $p<0.05$, *** $p<0.001$.^{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행추구형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31~40세의 여성이 다른 연령대의 여성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삶의 질추구형은 규칙적인 운동을 함($p<0.001$)과 자주 영화나 연극 감상을 함($p<0.001$)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건강추구형은 규칙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함($p<0.05$), 가정 중심의 생활을 함($p<0.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1세 이상의 여성이 다른 연령대의 여성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향적 독립추구형은 3개의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3) 학력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ANOVA 분석

학력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검정을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유행추구형은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임($p<0.05$), 패

션에 관심을 갖고 있음($p<0.01$), 패션에 대한 조언이나 충고를 함($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이 다른 학력의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삶의 질추구형은 미술관이나 공연장에 자주 방문함이 $p<0.05$ 로 유의하였으며, 영화나 연극을 자주 감상함이 $p<0.001$ 로 유의하였으며, 건강추구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외향적 독립추구형은 독립심이 강함과 자신감이 넘침이 $p<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4)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외식행동 분석

가설 4의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 (R^2)에 의해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4.0%이며, 모형에 대한 F값은 16.282, 유의확률 $p=0.000$ 으로 유의한 것($p<0.001$)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행추구형, 삶의 질추구형, 건강추구형

<Table 8> ANOVA analysis of life style depending on educational levels

(Mean±S.D)

Factor	Item of lifestyle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F-value
Type of chasing fashion	Rapidly accepting new vogue or fashion	3.07±1.15 ^{ab}	3.00±1.20 ^{ab}	3.46±0.99 ^b	2.80±0.92 ^a	2.713 [*]
	Being concerned about fashion information	2.93±1.29 ^{ab}	3.28±1.20 ^b	3.48±0.97 ^b	2.60±0.97 ^a	3.899 ^{**}
	Having clothes of the latest fashion	3.08±1.28	3.00±1.26	3.39±1.07	2.70±1.06	1.858
	Giving advice or good words regarding fashion	2.47±1.21 ^{ab}	2.40±1.14 ^{ab}	2.79±1.04 ^b	1.90±0.88 ^a	2.734 [*]
Type of pursuing for the quality of life	Doing regular exercise	3.09±1.32	2.92±1.18	3.13±1.15	3.10±1.29	0.324
	Training body and mind for health	3.16±1.07	3.12±1.12	3.33±0.70	3.30±0.82	0.538
	Taking up hobbies diligently	3.05±1.22	3.02±1.06	3.27±0.97	3.50±1.18	1.094
	Often visiting art museums or concert halls	2.09±1.14	2.46±1.18	2.70±1.03	2.40±1.51	3.672 [*]
	Often watching movies or plays	2.57±1.16 ^{ab}	3.28±0.95 ^c	3.13±1.07 ^{bc}	2.50±1.43 ^a	5.788 ^{***}
Type of chasing health	Enjoying meditating	2.70±0.99	2.88±0.96	3.03±0.86	2.90±1.29	1.456
	Living a sound life	3.78±0.95	3.80±0.93	3.99±0.80	3.70±1.16	0.857
	Living a regular and stable life	3.68±1.02	3.50±1.15	3.81±0.90	3.90±0.57	1.101
Type of extroverted dependence	Living a home-based life	3.65±0.88	3.60±1.01	3.82±0.88	3.60±0.84	0.746
	Being very independent	3.15±1.02 ^a	3.36±0.96 ^a	3.65±0.96 ^a	4.20±0.63 ^b	5.596 ^{***}
	Being certainly self-confident	2.96±0.97 ^a	3.16±0.74 ^{ab}	3.49±0.82 ^{bc}	3.80±0.63 ^c	6.525 ^{***}
	Thoroughly preparing in advance	3.46±1.00	3.62±0.73	3.61±0.92	3.20±0.79	0.960

* $p<0.05$, ** $p<0.01$, *** $p<0.001$.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이 $p<0.001$ 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졌으며 가설이 부분 채택되었다. 특히 유행추구형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은 회귀계수 0.367, $\beta=0.367$, t 값 6.046으로 외식동기에 따른 외식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건강추구형이 회귀계수 0.222, $\beta=0.222$, t 값 3.648이었으며, 삶의 질추구형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은 회귀계수 0.220, $\beta=0.220$, t 값 3.624로 외식행동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적 독립추구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여성들의 외식행동을 주거지역,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유형이 외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울산·경남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주거지역은 울산이 105명(49.8%), 경남이 106명(50.2%)이었으며, 연령은 41~50세가 75명(35.5%), 31~40세가 50명(23.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Table 9> Regression analysis of the eating-out behaviors depending on lifestyle typ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Regressive coefficient	Standard error	β	T-value
Eating-out	Type of chasing fashion	0.367	0.061	0.367	6.046 ^{***}
	Type of pursuing for the quality of life	0.220	0.061	0.220	3.624 ^{***}
	Type of chasing health	0.222	0.061	0.222	3.648 ^{***}
	Type of extroverted dependence	0.089	0.061	0.089	1.459
		$R^2=0.240$	Adjusted $R^2=0.225$	F=16.282	P=0.000

*** $p<0.001$.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이 77명(36.5%), 고등학교 졸업이 74명(35.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업으로 주부가 72명(34.1%)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는 기혼이 169명(80.1%), 미혼이 42명(19.9%)으로 조사되었으며, 월 소득은 101~200만원이 53명(25.1%), 201~300만원과 401만 원 이상이 49명(23.2%)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외식행동으로, 월 평균 외식 횟수는 2~4회가 106명(5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인당 1회에 지출하는 외식비는 5,001원~10,000원이 54명(25.6%), 10,001원~20,000원이 51명(24.2%)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하는 장소는 고기집 79명(37.4%), 한식 60명(28.4%) 순이었으며, 메뉴 선택 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맛이 157명(7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라이프스타일 항목의 요인 분석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누적분산설명력은 67.075%로 나타났으며, 외식동기에 따른 외식행동 항목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어졌고, 누적분산설명력은 55.437%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값은 모두 0.6이상으로 조사되어 측정 항목들의 신뢰도는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16개의 라이프스타일 항목은 유행추구형, 삶의 질추구형, 건강추구형 및 외향적 독립추구형의 4개의 요인으로 묶여졌고, 삶의 질추구형은 유행추구형 요인들과 $p < 0.01$ 유의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건강추구형은 유행추구형 $p < 0.05$, 삶의 질추구형 요인들과 $p < 0.01$ 유의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외향적 독립추구형은 유행추구형, 삶의 질추구형, 건강추구형 요인들과 $p < 0.01$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주거지역,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주거지역에 따른 차이검정은 t -test를 실시하였으며 유행추구형은 4개 변수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추구형은 영화나 연극을 자주 감상함($p < 0.01$),

규칙적인 운동을 함($p < 0.05$), 취미활동을 충실히 함($p < 0.05$)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건강추구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외향적 독립추구형은 3개의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 검정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분석에서 유행추구형은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임($p < 0.05$)에서, 삶의 질추구형은 규칙적인 운동을 함($p < 0.001$)과 자주 영화나 연극 감상을 함($p < 0.001$)의 변수에서, 건강추구형은 규칙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함($p < 0.05$)과 가정 중심의 생활($p <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적 독립추구형은 3개의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분석에서 유행추구형은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임($p < 0.05$), 패션에 관심을 갖고 있음($p < 0.01$)과 패션에 대한 조언이나 충고를 함($p < 0.05$)에서, 삶의 질추구형은 미술관이나 공연장에 자주 방문함($p < 0.05$)과 영화나 연극을 자주 감상함($p < 0.001$)에서, 외향적 독립추구형은 독립심이 강함과 자신감이 넘침($p <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추구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섯째,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은 외식동기에 따른 외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부분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에 나타난 전체 회귀식의 설명력은 24.0%이고, 회귀식 $p = 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행추구형, 삶의 질추구형, 건강추구형이 $p <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유행추구형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은 회귀계수 0.367, $\beta = 0.367$, t 값 6.046으로 외식동기에 따른 외식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외식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식시장에서 체계적인 세분시장의 선정과 각 유형별 특징에 맞추어 마케팅활동을 함에 있어 차별화의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겠다. 외식동기에 따른 외식행동은 유행추구형의 여성고객에게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역별 특징에 있어서는 유행추구형과 외향적 독립추구형에서 경남지역 여성고객보다 울산지역에 주거하는 여성고객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는 주거지역별 라이프스타일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외식업체에서는 지역별 특징에 맞는 마케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에 있어 31~40세 여성은 유행추구형, 51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외향적 독립추구형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졌으며,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표본의 자료 수집이 울산·경남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지역적 한계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외식행동의 척도개발에서 설명력이 낮은 점을 들 수 있겠다. 기존연구에서는 외식행동을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한 척도로 사용한 척도가 미흡하여 본 연구의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적 여성들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외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외식행동의 척도개발을 진행하여 라이프스타일유형이 외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외식업체의 마케팅전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외식동기 측면의 외식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울산·경남지역의 여성 211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요인 분석, 신뢰성 분석, *t*-test, ANOVA 분석, 다중회귀 분석,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라이프스타일의 항목은 4개의 요인으로, 외식동기에 따른 외식행동 항목은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졌다. 주거지역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차이검증 결과 유행추구형과 외향적 독립추구형은 변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요인 모두 울산에 주거하는 여성이 경남에 주거하는 여성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연령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분석 결과 부분 채택되어졌으며, 31~40세의 여성이 유행추구형에서 다른 연령대의 여성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51세 이상의 여성은 건강추구형의 생활에서 다른 연령대의 여성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분석결과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을 한 여성이 다른 학력의 여성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이 외식동기에 따른 외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행추구형, 삶의 질 추구형, 건강추구형이 $p < 0.001$ 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김동훈, 안광호, 유창조 (2005). 촉진관리(통합적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접근). 학현사, 69. 서울
- 소비자동향조사 (2010), Assessed September 19, 2011. Available from: <http://www.kosis.kr>
- 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2001). 소비자행동. 형설출판사, 52-56, 서울
- 이학식, 임지훈 (2007). SPSS 12.0 매뉴얼. 법문사, 122-123, 서울
- 안광호, 권익현, 임병훈 (2005). 마케팅. 학현사, 183, 서울
- 전호문, 김용만, 박세혁 (2005). 스포츠마케팅. 학현사, 252, 서울
- 정충영, 최이규 (2011).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185, 서울

- Chaib SI (1992). Systematic analysis of Korea lifestyl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1): 46-63.
- Cho HY, Lee JH (2010). The Effect of Hotel Restaurant Employees's Eating Habits on Their Dining-out Behavior. *Korean J Culinary Res* 16(4):124-138.
- Cho JK, Kim HD (2001). A Study on advertising information search activity of consumer's life-style. *The Korea Journal of Advertising* 3(1): 35-61.
- Douglas PS, Urban CD (1977). Life Style Analysis to Profile Women in International Markets. *Journal of marketing* 41(3):46-54.
- Han IK, Ha AW (2009). A Study on Weight Control Behavior by Female Consumers Eating Life Style. *Korean J. Food & Nutr.* 22(2): 177-184.
- Hawkins IBR, Kenneth AC (1986). Consumer Behavior. Implications for Marketing Strategy 3th ed, plano, Business Publication, Inc., 78-89.
- Hong WS, Kwon YS, Kwon YM, Yoo HK (2011). Content Analysis of Dietary Lifestyle-Related Research Articles from 1990 to 2009.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 Association* 49(2):13-26.
- Hur SG (2007). Purchasing Behavior for HMR Product by Life Style Patterns. Master degree thesis, Sejong University, 41-42, Seoul.
- Jeong GW (2009). A Study on Food Purchase Behavior and Satisfaction on Home Shopping according to Wives's Food Related Lifestyle. Master degree thesis, Sejong University, 68-72, Seoul.
- Jung HS, Yoon HH (2007). A Study on the Dining-out Consumption Pattern of Undergraduates by Food-related Lifestyle.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0(2):93-117.
- Lee BS, Park YH, Lee JH (2011). A Study on Obesity, Eating-out Behaviors, and Eating Habits among the Housewives in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Korean J Culinary Res* 17(3):151-161.
- Lee BY, Woo KS (2006). A Study on Variable of Measurement in the Wine Related Lifestyles in Korea. *Korean J Culinary Res* 12(4):97-115.
- Lee JH (2009).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Dining-out Activities, Eating Habits, and the Frequency of Fast Food Intake and Obesity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in the Busan Area. *Korean J Culinary Res* 15(3): 225-235.
- Lee SI (2008). A Study on the Attributes of Menu Selection by Consumption Behavior of Food Service. *Journal of Hotel & Resort* 7(2):85-99.
- Lee YR (2009).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the Importance of Spatial Presentation and Food among Potential Customers of a Party by Patterns of Eating Lifestyle. *Korean J Culinary Res* 15(2):282-297.
- Lim HC (2010). The Effect of Lifestyle, Service and Quality of Bakery Products on Purchasing Intention. *Korean J Culinary Res* 16(3):14-31.
- Kim DH, Beil GY (2005). A Study on the Eating-out Behavior of City Workers(I). *Korean J. Food & Nutr.* 18(3): 241-253.
- Kim DH, Beil KY, Kim SJ (2007). A Study on the Eating-out Behavior of Daegu City Workers (II). *Korean J Culinary Res* 13(2):240-253.
- Kim HJ, Kim MR (2010). Analysis on the Effect of Dietary Lifestyle on Consumption Pattern of Soybean Paste among Housewives. *Korean J Culinary Res* 16(3):76-93.
- Kim HS (2008). A Study on Purchase Intention of Bakery According to Eating Habits. Master de-

- gree thesis, Chungwoon University, 1. Hong-seong.
- Kim KY (2006). Analysis on Dining Out Behavior and Menu Preference by the Lifestyle of Senior Customer. Master degree thesis, Yonsei University 12, Seoul.
- Kim MJ, Jung HS, Yoon HH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ood-related lifestyle of undergraduates and the restaurant selection attribute. *Korean J. Food Culture* 22(2):210-217.
- O'Sullivan C, Scholdere J, Cowan C (2005). Measurement equivalence of the food related lifestyle instrument(FRL) in Ireland and Great Britain.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6(1):1-12.
- Park KY (2008). A Study on Purchasing Behavior of Buffet Restaurant Customers Based on Life Style.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dministration* 17(6):81-99.
- Schoderer J, Brunø K, Bredahl L, Grunert KG (2004).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food-related lifestyles instrument(FRL) within Western Europe. *Appetite* 42(2):197-211.
- Sohn IN, Kim YS (2008). Research on the Dining-out Behavior of Cheong-Ju Undergraduates by Food-related Lifestyl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8(11): 347-355.
- Solomon MR (1994). *Consumer Behavior* 2nd ed.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23-35.
- Stelmach W, Kaczmarczyk-Chalas K, Bielecki W, Drygas W (2005). How education, income, control over life and lifestyle contribute to risk factors for cardiovascular disease among adults in a post-communist country. *Public Health* 119:498-508.
- Sul HK, Lee SH, Jun JK (2007). An Exploratory Study on Dietary Behavior in Lifestyle.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0(2):267-284.
- Van JW (2008). A Study on Eating-out Behavior by Cluster Analysis according to The Lifestyle of Female Consumers in Seoul. *Korean J. Food Culture* 23(3):377-387.
- Woo KJ, Yang HS, Rho JO (2005).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and its factors in restaurant selection of university student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5(2):235-245.
- Yoon HR (2005). The study of dining-out behavior and preference on Korean foods by age groups. *Korean J. Food Culture* 20(5):608-614.
- Yoon SH (2003). A Study on Children's Behaviors in Eating-Out. *HONAM UNIVERSITY* 24(2): 235-246.

2011년 12월 06일 접수
 2012년 01월 27일 1차 논문수정
 2012년 02월 29일 2차 논문수정
 2012년 03월 29일 3차 논문수정
 2012년 05월 29일 게재확정